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5

배달해 온기 드립니다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온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 석관동살이 50년, 권춘자의 삶 -

온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 석관동살이 50년, 권춘자의 삶 -

선종욱·신수민·장지희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5

온기를 배달해 드립니다

- 석관동살이 50년, 권춘자의 삶 -

구술자 권춘자

지은이 선종욱·신수민·장지희

협 력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4단계 BK21 교육연구단

엮은이 장지희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조태권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권춘자 · 성북문화원, 2021

ISBN 979-11-954544-5-7 03910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오제연

운영 김지훈·장지희

발간사

기억과 역사 사이에서

성북문화원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 하나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로 주민기록단 교육의 결과물인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입니다. 우리 문화원은 작년부터 구술생애사 교육과 활동에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의 역사 만들기를 시도했습니다. 2020년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1~3권의 발간이 그 노력과 실천의 산물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시작된 주민기록단 구술사 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진 바, 우리 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협력하여 성북구 마을아카이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성북구의 공동체 기록을 모으고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주민기록단 양성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마을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문화원에서 축적한 다년간의 연구 성과와 마을아카이브팀의 기록물 수집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후 성북구 지역민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주민기록단의 활동과 스스로 역사 만들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문화원은 차별화된 주민기록단 교육 커리큘럼과 훌륭한 강사진들의 노력으로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제는 기록뿐만 아니라 과거의 재현으로서 기억, 기억의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포착할 때입니다. 성북구의 기억의 장소는 지금도 만
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으로 부르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이
미 역사이고, 기억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를 추구하는 것입니
다. 이러한 관점에서 올해는 성북동 북정마을과 석관동 한천마을의
기억과 역사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구술자의 어린 시절, 마을에서
겪었던 일들, 현재 삶의 모습으로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대체로 시
간 순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아무 곳이나 펴서 읽어도 무방합니다.
또한 북정마을과 한천마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적으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선 매주 과제와 교육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주민기록단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당신의 기억을 하나씩 꺼내
주신 구술자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양한 구술사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이론적 배경을 단단하게 다져주신 성균관대
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고단한 사정 속
에서도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주민기록단 교육에 큰 기여
를 해온 마을아카이브팀의 노고를 기억해 둡니다.

성북문화원은 늘 그렇듯이, 현장을 우선으로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주민기록단과 함께 공부하며 채워가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
야기를 통해서 지역의 역동성과 풍부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성북문화원 원장 조 태 권

축사

주민들이 함께 기록한 성북의 역사

인류 역사에 많은 격변이 있었지만, 2021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야말로 대격변의 한복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워드 코로나가 이야기되고 있지만, 자유롭게 만나고 이야기 나누던 일상이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누구도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주민기록단 활동의 핵심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구술 면담’임에도 상반기 6주간, 그리고 하반기 8주간 진행된 주민기록단 교육은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행히도 구술자들과는 대면 면담이 가능했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했기에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솔직히 저는 주민기록단의 교육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과연 2021년의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주민기록단 단원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색하고 불편한 온라인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또 교육에서 배운 구술사의 이론과 방법을 활용해 조를 짜서 구술자와 직접 대면하고 면담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주민기록단 활동에 불편함을 초래했을지언정,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단원들의 구술사 역량은 교육과 실습이 진행될 수록 날로 커져갔습니다.

이번에 간행된 두 권의 책은 2021년 하반기 주민기록단 활동의 최종성과입니다. 하반기에는 처음부터 구술생애사 책자 간행을 목표로 구술사 이론 및 방법 교육, 구술자 섭외와 대면 면담, 그리고 녹취록 작성과 원고 작성 등의 활동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반기 주민기록단 활동 과정에서 구술을 해 주신 분은 권춘자 님과 이승규 님이십니다. 두 분 다 성북구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신데, 권춘자 님은 석관동에서 오랫동안 연탄가게를 운영하셨고, 이승규 님은 북정마을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권춘자, 이승규 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성북구의 역사적 변천과 더불어, 그 속에서 살아갔던 성북구 주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 책은 주민들이 직접 만나 묻고 답하며 함께 써 내려간 성북의 역사이며, 이야말로 구술사가 추구하는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이 간행되기까지 애써주신 두 분의 구술자님과 모든 주민기록단 단원들, 그리고 성북문화원의 김지훈, 장지희 선생님과 성균관대 사학과 4단계 BK21 사업단의 곽규일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지만, 성북구 주민기록단의 활동은 이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머 리 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석계역과 신이문역 사이에는 중랑천을 따라 연탄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는 1968년 정부에서 이곳에 연탄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고 신이문역 부근에 하나의 연탄 공장만 남아있어 예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석관동에 오랜 시간 거주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당시의 동네 모습이 선명할 것입니다.

‘성북 사람들의 구슬생애사’ 다섯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권춘자님은 석관동에서 50년간 거주하셨습니다. 상경 후 석관동에 자리를 잡고 남편과 함께 연탄 공장을 오가며 리어카에 연탄을 가득 싣고 석관동 골목 곳곳을 누비며 약 20년간 석관동 주민들의 겨울을 책임지셨습니다. 이렇듯 연탄과 깊은 연이 있는 구슬자의 삶 속에는 석관동의 변화상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구슬자의 구술 내용에 따라 ‘1부 내 고향 영주에서 서울로’, ‘2부 연탄 이야기’, ‘3부 식당 이야기’, ‘4부 우리 가족’, ‘5부 우리 동네, 석관동’으로 총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구슬자의 고향과 어린 시절 이야기 그리고 결혼 후 상경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고향인 영주에 대한 기억과 남편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생생하게 묘사해주셨습니다.

2부는 상경 이후 석관동에 자리를 잡고 연탄을 판매할 당시의 이야

기를 담고 있습니다. 약 20년의 세월 동안 연탄 장사를 하시며 겪은 일들을 담담하게 풀어내어 주셨습니다.

3부에서는 연탄가게를 그만두고, 석관동에 위치한 버스회사, 연탄 공장, 파출소 등에서 직원 식사를 담당했을 때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술자와 동네 주민들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부에서는 구술자의 남편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던 남편에 관한 이야기와 자녀들이 성장할 때 겪었던 기억에 남는 소소한 일화를 통해 남편을 향한 구술자의 마음과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부에서는 구술자가 들려주는 석관동 이야기와 동네에 대한 생각을 담아내었습니다. 석관동 관련 에피소드와 함께 동네에 대한 구술자의 애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권춘자 님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구술자의 이야기를 통해 석관동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책을 펼치신 모든 분께 구술자의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12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장 지 희

차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0
약력	15

1부 내 고향 영주에서 서울로

나는 선돌에서 컸어요	19
부모님과 형제 이야기	21
남편과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22
아들 둘 출산 후 서울로 오다	26
양은 장사도 하고 쌀장사도 하고	30

2부 연탄 이야기

시커먼 거는 너무 무거워요, 못 끌어	35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45
이제 리어가 놓아야지	49

3부 식당 이야기

연탄 장사 이후	55
소장이 나한테 참 잘했어요	57
운전사들 밥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았지	59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살았어요?	62

4부 우리 가족

우리 아저씨는 참 착했어	67
비 오는 날에는 청량리시장에 가요	70
자녀들의 성장	73
큰아들의 결혼	75

5부 우리 동네, 석관동

연탄재로 뒤덮인 석관동	81
석계역 물난리	84
한천마을의 탄생	88
석관동에서의 활동	89
우리 집이 있는 석관동	91

에필로그	95
------	----



약력

1945년 경상북도 영주 출생

1966년 22살에 결혼

1967년 첫째 아들 출산

1970년 둘째 아들 출산 후 상경, 이문동 거주

1971년 첫째 딸 출산

1973년 막내딸 출산 후 석관동으로 이사, 여러 가게 운영

1975년 석관동 124-27에서 연탄가게 시작

1995년 연탄가게 영업 종료 후

상진운수, 석관파출소, 삼천리연탄 공장 등에서
약 10년 간 직원 식사 담당

현 재 한천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면담정보

1차

면담자: 김지훈, 장지희

면담장소: 한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한천로 550)

면담일자: 2021년 8월 26일

2차

면담자: 선종욱, 신수민, 장지희

면담장소: 한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한천로 550)

면담일자: 2021년 9월 28일

3차

면담자: 선종욱, 장지희

면담장소: 한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한천로 550)

면담일자: 2021년 10월 14일

※ 공식 면담 이외에 수차례 비공식 인터뷰 진행

01

내 고향 영주에서 서울로



상경 이후

나는 선돌에서 컸어요

● 선생님의 고향은 어디신가요? 당시 동네 풍경은 어땠어요?

고향은 경상도. 안동 옆에 영주야. 영주라고 있잖아. 나는 1945년에 선돌¹에서 태어나고 컸어. 우리 아저씨는 봉화 적덕1리. 도춘초등학교² 옆이야. 남편하고 고향에서 결혼하고 농사짓다가 아들 둘 낳고 서울로 왔지.

논 있고 밭 있고 주변에 산 있고. 동네 풍경은 지금도 변화 없어. 우리 동네는 별 변화가 없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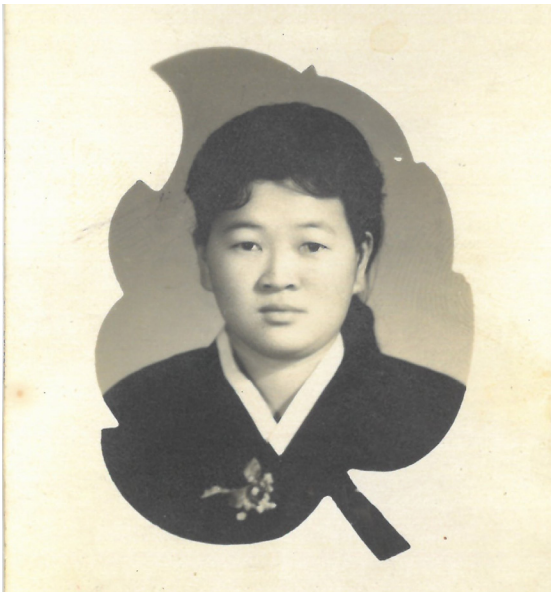
1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웅암리의 지명이다.

2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639 위치. 1949년 12월 1일 개교하였다. (출처: 도춘초등학교 홈페이지)

● 유년 시절은 어떠셨나요?

나는 학교에 못 갔어요. 당시에 면사무소에서 일하셨던 우리 작은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버지한테 딸은 안 가르쳐도 되고 오빠는, 사촌 오빠는 가르쳐야 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촌만 학교 보내고…. 나는 학교에 못 가서 맨날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 가르친다고 서울에 왔어요. 내가 나중에 작은아버지한테 얼마나 퍼부었는지 몰라. 작은아버지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맨날 그랬어.

동네에는 친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맨날 같이 동네 다니고, 놀고, 감자나 깎고, 발이나 매고 그랬지 뭐. 안 그러면 할 게 없어. 옛날에는 놀 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21세 권춘자 님

부모님과 형제 이야기

●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요?

농사를 지으셨지. 나랑 남편도 농사짓다 왔고. 요새는 인삼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풍기만 인삼을 했었어요. 다른 지역은 별로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 고향도 다 하더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냥 논, 밭에 벼 심고, 보리 심고 그런 거지 뭐. 그때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고구마 심고. 시골에 있을 때 고구마 심어서 캐오고 뭐 딴 거 없어. 보리, 쌀 그런 거만 했지.

요새는 투자 작물을 많이 하는데 옛날엔 그런 투자 작물이 없었어요. 진짜 요새니까 별거 다 하지, 요새니까. 옛날에는 농사만 짓지 뭐.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농사일 도와드리고 했어요.

●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딸 여섯에 아들 하나. 칠 남매예요. 내가 여섯째고, 내 바로 위에 뱀띠인 오빠 있고 내 밑에 여동생 하나 있어요. 오빠는 지금도 선돌에 살아요. 고향에 살고 있어. 고향을 떠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잘 살아요. 오빠도 애 넷 다 객지에 내보내고 지금도 농사짓고 잘 살아. 앞에 텃밭에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땅콩 심고 다 하고 있어. 우리 여동생은 지금 경상북도 청송에 살고.

● 형제분들과 우애는 어떠셨어요?

우애는 다 좋아요.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지낸다고. 우리는 남매간이고 형제간이고 안 싸워요. 오빠도 이제 나이가 있고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동생인데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 안 하고. 그저 “자네 몸 건강해야 해. 몸 건강해야 해.” 맨날 그래. 잘해줘요.

전화도 자주 해요. 명절 지나면 전화하지. 엄마 제사 때고 뭐 가끔 고향에 가고 했는데 남편 아프고부터 지금까지는 잘 못 가지.

남편과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결혼은 스물둘. 남편은 두 살 더 많아. 스물넷이었어. 결혼식은 1966년 음력으로 9월 며칠에 했는데 그렇게 정확하게는 몰라. 시골은 다 음력으로 했어. 9월 중순인가, 그때 결혼했어요. 추석 지나고 날이 아직 더울 때였거든요. 생활이 바빴으니까 결혼 기념 날짜도 모르고 막 넘어갔지.

● 남편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옛날 시골에서는 중매로 결혼해야 해. 만약에 저쪽 동네에 사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이 나를 소개하고 남자 쪽에 있는 사람 또 하나가 우리 집으로 와서 둘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러면 만나든지 말든지…. 우리 집은 안동 권가 양반집이라고 뭐 성이고 뭐고 다 봐서 결혼하지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저쪽도 허락이 되고 우리 집에서도 허락이 되면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한 번 멀리서라도 보든지, 뭐 여기 있으면 저쪽 멀리서 보든지 하지. 마주 앉아서도 잘 못 봐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저 집 딸이 연애했는데, 신랑이 와 봤는데 안됐단다. 파혼했단다.” 그런 소문이 나면 또다시 시집가기 어려워니까.

우리 동네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어요. 집에서 한참 가면 논 두렁에 우물이 있는데 두레박으로 퍼서 부어서 집까지 이고 와야 해. 우리는 그런 데서 컸어요. 우리 아저씨는 옛날에 미군 부대 카투사(KATUSA)³로 갔어요. 그래서 카투사 군복 입고 다녔는데, 와서 나를 직접 볼 수는 없고 멀리서 한 번 보고 갔나 봐요. 어느 날 내가 물을 길어 왔는데, 저녁에 우리 올케가 오빠보고 하는 말이 “여보, 오늘 우리 아가씨가 물을 이고 오는데, 늘씬하게 잘생긴 카투사 군인 하나가 아가씨를 이렇…게 보고 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하는 말이 “그 카투사가 보면 보지 뭐… 너 보러 왔나?”라고 하더라

3 카투사(Korean Augmentation to the United States Army, KATUSA)는 주한미군 부대에 배속된 한국군 병력으로 1950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간의 합의에 따라 공식화되었다. 미군 사단의 부족 병력을 보충하여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고. 그래서 올케 언니가 “여보,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아가씨를 보더라 이 얘기가.” 하더라고.

근데 그 후에 그게 자꾸 소문이 나서 우리 동네 중매자가 우리 엄마랑 아버지한테 와서는 “사위 될 사람이… 딸이 물 이고 오는 걸 보고 다 봤다는데… 조만간 맞선 좀 보자.” 그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 아버지가 막 펄펄 뛰지 뭐… “어디라고 맞선을 보냐.”고. 맞선 봤다가 만약 잘 안 되면 나 시집도 못 간다고 그래.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 있다가 한 번 맞선을 보게 됐어. 그런데 시골에서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옛날에는 어디 뭐 다방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동네 어딘지 갔지. 내가 조카가 있는데, 그때 네 살 먹은 게 맨날 나만 따라다녔거든. 그래서 조카를 데리고 이제 동네에서 조금 나가니까 군인이 하나 서 있더라고. 거기 있어도 뭐… 내가 먼저 말은 못 걸지, 여자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리니까 그쪽에서 말을 걸더라고. 이름이 뭐고, 뭐 그런 걸 묻더라.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그런데 왜 그러세요?”라고 해버렸어. 나도 뭣도 모르고 어렸으니까. 그랬더니 좀 알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래. 하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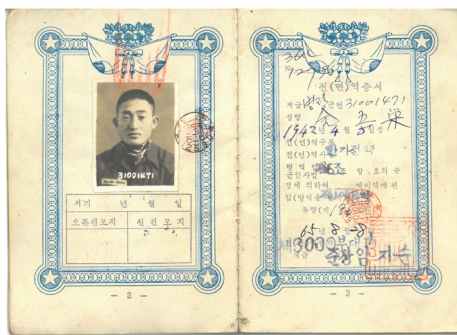
한 번은 그렇게 만나고 집으로 왔고. 또 옛날엔 도랑에 가서 빨래를 해야 해. 방망이로 두드리고 해야 해서 집 근처 도랑에 가서 막 빨래를 했어요. 친구들과하고 죽 앉아서 막 빨래 빨고 그때 머리는 길어서 빨간 댕기로 묶고 앉아서 하는데, 거기 근처에 약수 물통이 있었어. 우리 시어머니가 할머니들이랑 같이 거기 약물 터에 간다고 가다가 나를 한 번 보려고 하셨나 봐.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이렇게 돌아보고 저렇게 보는 데도 나는 앞만 보고 빨래만 하더라. 뒤를 한 번

이라도 돌아보지도 않고. 우리 시어머니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
 가 보고 싶은데 내가 안 보더라. 그래 약수터로 가서 약수만 먹고 집
 으로 가서 아들,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 보고 “그래… 그만하면 됐다.
 더 이상 볼 거 없고 그렇게 착하면 됐지. 다른 애들은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데 그 처는 한 번도 안 돌아보더라. 니만 맘에 들든 결
 혼해라.” 그래서 그렇게 승낙이 됐어.

그 뒤로는 이제 아저씨가 “끓어도 같이 끓고 먹어도 같이 먹고 한
 번 살아보자.” 그래서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지금껏 이렇게 살아
 왔어요. 한참을 사귀다가 결혼 날 받고 결혼해서 살아온 거지.



남편 김오영 님



남편의 예비군인수첩

● 결혼식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나는 그냥 집 마당에서 결혼했지. 어디가 있겠어. 그때 나는 가마 타고 시댁에 갔고 우리 아저씨는 우리 집에 올 때 그냥 걸어왔어. 결혼하고 친정에 삼 일 있다가 시댁으로 갔지. 시댁이 그렇게 많이는 안 멀어요. 좀 멀기는 해도 걸어가고, 걸어오고 할 수 있어. 서울 오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어른들 모시고 농사짓고 살았지.

우리 아저씨도 사 남매야. 딸 둘 아들 둘. 사 남매 중에 우리 아저씨가 누나 하나 있고 두 번째예요. 아들로는 첫 번째니까 지금까지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여기서 다 차례를 지내요. 우리 아버님은 시골에서 별세하셨고. 우리 어머님은 우리 남편이 첫째 아들이니까 서울로 모셔 왔다가 여기서 돌아가셔서 다 초상 치르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시골로 안장하러 가셨지.

아들 둘 출산 후 서울로 오다

● 결혼하시고 고향에서 얼마나 더 사신 거예요?

결혼해서 농사짓고 살다가 아이 둘 낳고 서울로 왔지. 시골에서 아들 둘 낳고, 여기 와서 딸 둘 낳고. 한... 1970년쯤 서울로 왔어요. 내가 1967년 1월에 첫째 아들을 낳고, 1969년 9월에 둘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 정도 될 거예요.

● 서울에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석관동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서 사셨나요?

우리는 애들 가르친다고 서울로 온 거예요. 우리 아저씨는 영주에서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나왔어. 영주 영광고등학교. 집에 돈은 있는데 몸이 안 좋아서 대학을 못 갔고, 나는 애초에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갔지. 그래서 ‘내 자식은 잘 가르치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울로 온 거예요. 우리 남편 집안 큰집이 그때 서울에 먼저 와서 이문동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거든. 농사일하는 것보다는 서울 와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올라왔지.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해서….

시골에서 기차 타고 와서 청량리역⁴에 내려서 버스 타고 제일 처음에는 외대(한국외국어대학교⁵) 앞으로 갔어요. 제일 처음에 외대 앞에서 몇 년 살다가 석관동으로 왔는데, 이 밑에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 예술학교(한국예술종합학교⁶) 들어가는 입구에 와서 쌀장사하다가, 또 석관시장 옆에 가서 한 삼, 사 년 살았더라고. 지금은 거기가 돌꽃이시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⁷ 그리고 그 후에 석관동 버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214 위치. 1911년 10월 15일에 개업하였다. (출처: 철도산업정보센터)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위치. 1954년 4월, 종로2가에서 개교 후 1957년 9월 1일 이문동으로 이전하였다. (출처: 한국외국어대학교 홈페이지)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37 위치. 1993년 음악원을 시작으로 차례로 개원하였으며 1996년 석관동 교사로 입주하였다. (출처: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

7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꽃이로22길 54-16에 위치한 전통시장. 2017년에 ‘석관황금시장’에서 ‘돌꽃이시장’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종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으로 왔어. 술한 고생 다 했지만, 그때는
‘애들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만 했어요.



돌곶이시장 입구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돌곶이시장 내부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1970년대 청량리역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청량리역이 지금 바뀌어서 그렇지. 그때는 그 당시 버스 번호로 48
번⁸을 여기 석관동에서 타고 가서 버스 내리고 건너만 가면 기차를

8 현재 261번으로 바뀌었다. 석관동부터 여의도까지 운행한다.

타는데 지금은 역이 다 바뀌어서 이상하더라고요. 전에는 거기서 그냥 기차에서 내려서 바로 올라와서 조금만 나오면 그냥 48번 버스를 탈 수 있었고 그걸 타면 석관동까지 와요. 그래서 시골 어른들이 찾아오기가 좋았지.

내가 서울에 오기 전에 남편은 미리 서울에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아저씨가 미리 올라오고 내가 뒤에 따라왔거든. 남편은 내가 오기 전까지 이문동 큰집에서 밥 먹고 지냈어요. 거기에 쌀 가져다드리고 먹고 자고 했었지. 내가 애들 데리고 서울로 오기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번 월급 타면 고향에 내려 왔다가 올라가고 그랬어.

● 먼저 서울로 오신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나요?

우리 아저씨가 서울에 와서 제일 처음에는 청량리역에서 일했어요. 옛날에는 기차가 들어오면 깃대 들고 표시를 해줬었거든요. 그 일을 했어요. 영주 출신 김창근⁹이가 우리 일가예요. 김창근이 국회의원이면 청량리역에 정식 직원으로 채용시켜 준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청량리역에는 계속 임시직원으로 있었어요. 임시로 있었는데, 친구하고 같이 일하다가 친구가 기차에 치여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저씨가 “나는 굶어 죽어도 이제 거기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청량리역에 안 간대요. 친구랑 둘이서 같이 일하다가 친구가 그렇게 사고를 당하니까…. 그래서

9 김창근(金昌權, 1930~1991)은 4선 국회의원이다. 1971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후보로 영주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가 1972년 10월 유신 때 정치 활동 규제를 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권춘자 님의 상경이 70년대 초반인 것을 감안하면, 구술에서 국회의원에서 떨어졌단 얘기는 국회의원직을 잃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가 많이 울었어요. 먹고 살길이 없잖아요. 그 일을 안 하면 뭐 먹고 살아요.

그다음에는 아는 사람이 옛날에 청량리역 앞에 오스카 극장¹⁰이 있었는데 그 앞에 교통정리 일을 하겠냐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정리는 돈이 안 되잖아요. 애를 넷이나 길러야 하는데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밥 벌어먹으려고 서울 가 놓고는 시골 재산 타 먹으려고 한다고 쌀을 안 줬어요. 먹고 살길이 없었어요. 너무 막막했지.

양은 장사도 하고 쌀장사도 하고

●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양은 장사도 해 보고, 쌀장사도 해 보고…. 연탄 하기 전에 한번 누가 해 보라고 해서 하다가 다 말아 먹어버렸어. 쌀을 팔 때 이렇게 자루가 있으면 폭 떠가지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살살 부으면서 나와야 한다는데, 우리는 당시에 잘 몰랐으니까 한 되를 폭 퍼서 처음에서부터 가득 담긴 그대로 부어서 파니까 쌀한 가마니를 팔아도 한 개도 안 남아요.

그때는 바로 이문동 지나 여기 위에 와서 한국예술종합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몇 개 있었는데 잠시 거기 얻어서 장사를 해왔고. 근데 안 됐어요. 그 이후에는 석관시장(돌꽃이시장)으로 와서 양

10 오스카 극장은 1960년 10월 4일 개관하고 1998년 폐관한 극장이다. 현재는 삼성화재 청량리 사옥이 들어서 있다.

은 가게도 해 보고 옥수수도 찌 팔고 고구마도 구워 팔고 해 보다가
안 돼서 이거 연탄, 마지막으로 연탄을 시작한 거야. 그게 한 1975년
쯤이지.

12

연탄 이야기



1978년 칠표연탄 공장 작업 모습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시커먼 거는 너무 무거워요, 못 끌어

● 연탄가게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누가 연탄 장사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48번 버스, 그게 석관동 탑마트 앞이 종점이던 버스예요. 탑마트 앞에 종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종점이 석계역 쪽으로 더 내려왔잖아요.¹¹

아무튼, 거기서 이사를 해서 연탄 장사를 시작했는데 리어카를 안 끌어봐서 처음에는 둘이 끌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도 리어카를 안 끌어봐서 처음에는 못 끌었어요. 그 연탄이 무거워요. 타고 나면 가벼운데 시커먼 거

11 탑마트는 현재 돌곶이로22가길 27에 위치한다. 버스 종점의 위치가 현재와 달랐던 듯하다. 현재는 석관동 상진운수 앞이 종점이다.

는 너무 무거워. 막 울면서 갔었죠. 그땐 여기가 전부 벌판이었어요. 길도 너무 안 좋아서 리어카가 잘 안 따라오는데 뒤에서 누가 가다가 밀어주려고 해도 손이 시커멓게 되니까 못 밀어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연탄을 혼자 못 끄니까 직원을 하나 뒀어요. 우리가 한 리어카 갖다 팔고 나면 하루 일당 줬지요. 하루 얼마씩. 그런데 이놈의 아저씨가 일하러 오다가 막걸리 사서 그거 먹고 우리가 연탄 백 장 넣을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놀다가 온다고. 우리는 탄짓도 안 하고 일 시작하면 한 리어카 갖다 팔았는데 그 사람은 오다가 막걸리 한 병 사 먹고 열나절 있다 와요. 그럼 우리는 연탄을 얼른 다 넣고 대문을 닫아 주고 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혼자 연탄 넣고 있고, 나는 그 막걸리 마신 아저씨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렇게 일하다가 그 아저씨 그만두고는 내가 혼자 리어카를 못 끄니까 백 장이 아니라 오십 장씩 싣는 걸 처음에 배웠어요. 처음에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리어카가 똑바로 안 와요. 힘이 달려서. 그래도 어떻게든 배워서 일했어요.

나는 연탄을 하루에 천 장도 꿇고. 천 장이면 열 리어카 정도 되거든. 백 장씩 열 개라야 천 장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그 막걸리만 마시던 아저씨가 관두고 내가 오십 장씩 받아 오다가 남편이랑 나랑 둘이서 같이 가서 백 장씩 받아 오고 했어요. 내외가 해서 많이 벌었지. 우리 아저씨가 술, 담배도 안 하고 정직했거든요. 우리 둘이 일해서 애들 넷 다 가르치고 그랬죠.



1979년 서울시장 연탄공장 시찰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 처음 연탄 장사하실 때 이 동네는 어땠나요?

그때는 여기가 전부 벌판이야. 다 논, 밭이었어. 종점에 상진운수¹² 건물 하나, 그 앞에 또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있었을 거예요. 건물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6길 42에 위치한 시내버스 업체이다. 1961년에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개 있을 때 여기 왔어요, 내가. 사람들이 하나하나 건물 짓고 들어와서 살았지. 내가 처음 왔을 때는 종점 근처가 허허벌판이었어요.

여기 길이 마구 흩이니까 버스가 다니면 먼지가 나요. 그게 얼마나 심했냐면 저 밑에 지금 한독의원¹³있는 데서 마구 먼지가 나니까 상진운수에서 리어카에 드럼통을 하나 싣고 물을 한 통 담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길가에 물을 뿌렸어요. 그런데도 먼지가 많이 나서 안 된다고 동네 주민들이 상진 사장 나오라고, 먼지가 나서 못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상진운수 사장을 옥상에다 갖다 딱 숨겨 놓고 사장 없다고 하기도 했어요. 큰 버스가 다니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났지.



한독의원 현재 모습(2021.10.20.)

-
-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591에 위치한 병원이다. 구술자가 석관동에 왔을 때부터 병원이 있었다는 구술 내용과 더불어 1981년 1월 20일 중앙일보에 실린 ‘의료보호지정 병·의원 백 38 개소 추가(서울시내)’ 기사에 한독의원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최소 40~50년 이상 된 것으로 추정된다.

● 연탄가게는 어디서 운영하셨나요?

이쪽으로 이사 와서, 연탄가게를 시작하려고 상진운수 뒤쪽 건물에 가서 가게 운영하게 자리 하나 달라고 하니깐 주인이 안 준다고 해요. 시키면 연탄 장사한다고 하니깐 싫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길가를 깨끗하게 할 테니까 가게 좀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우리 아저씨도 인물 좋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탄 장사할 사람들이 아닌데, 왜 연탄 장사를 하려고 해?” 그래요. “시골에서 배운 게 없고 우리 남편은 영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서울로 왔더니 먹고 살길이 없어서 하려고 한다.”고 하니깐 그러면 가게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게 운영하면서는 항상 그 앞을 깨끗하게 청소해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주인이 고맙다고 세를 안 올려요. 하도 오래되어서 그때 전세를 얼마에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때가 언제나면 우리 막내딸이 소띠인데, 딸이 세 살 때 거기 얻었으니까 1975년쯤? 그리고 한 20년 다 되도록 연탄을 했어요. 힘들어도 다른 일은 할 게 없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라는 생각으로 일했죠.



첫 번째 연탄가게 자리
(2021.10.20.)



두 번째 연탄가게 자리
(2021.10.20.)

● 연탄은 주로 어디서 떼 오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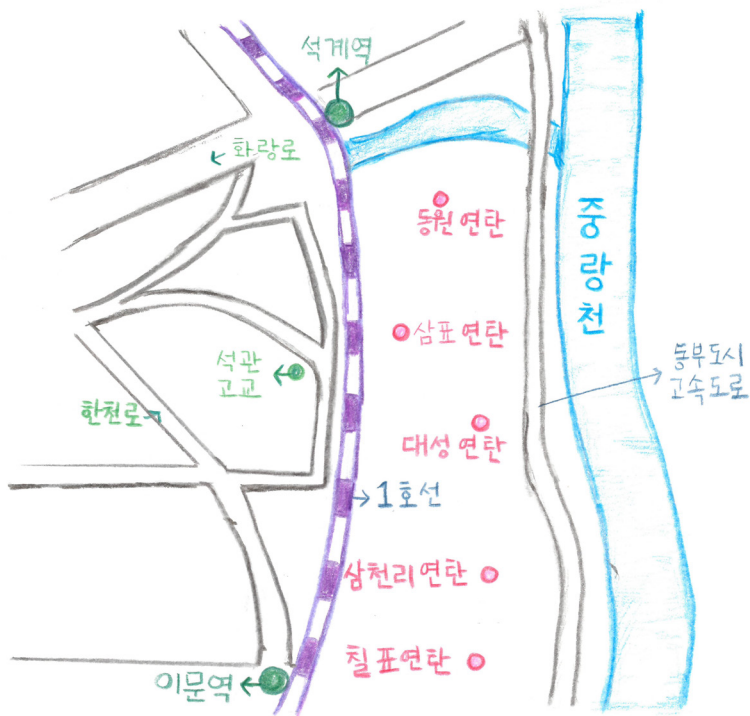
연탄 공장에서 연탄을 실어 와서 장사를 했는데, 그때 삼천리연탄 공장¹⁴이 이문동 굴다리 밑에 있었어요. 삼천리, 칠표, 대성, 삼성, 동원연탄 이렇게 다섯 개가 쪽 내려가며 있었어. 옛날에는 삼천리에서 연탄을 제일 많이 가져왔지. 삼천리 탄이 제일 좋았어요. 삼천리가 어려워져서 연탄값 막 오른다고 할 때는 삼성도 가서 조금 사 오고, 칠표도 가서 사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안 산다고 그래. 탄이 나쁘다고. 그래도 우선 팔아야 하니까 가서 떼 왔어요. 지금은 삼천리 하나 남아있어요. 이문동에 지하로 폭 내려가서 있잖아요. 연탄 가루 날린다고 주민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거기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은 폭 내려가서 석계초등학교¹⁵ 바로 밑에 있어요.

1968년 연탄산업단지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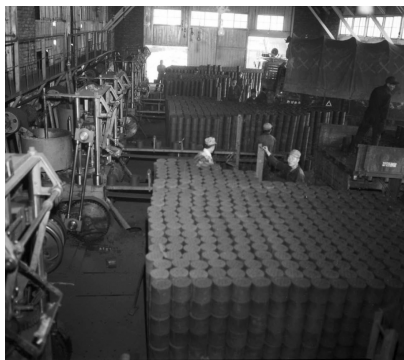
급증하는 서울의 연탄 수요를 맞추고, 시내 중심가의 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북구 석관동과 동대문구 이문동에 연탄 공장 단지가 조성되었다. 공장은 계속 운영되다가 1990년대에 아파트 건설 및 학교 설립 등의 이유로 그 수가 축소되었다. 현재는 동대문구 이문동에 삼천리연탄 공장만 남아있다.

14 1968년 1월 1일, 동대문구 이문3동 22의 2번지에 준공되었다. 당시 국내 최대 규모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연탄 공장이었다. (출처: 동대문구 기억여행)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58길 273에 위치. 2005년 3월 2일에 개교하였다. (출처: 석계초등학교 홈페이지)



1990년대 연탄공장 약도
(경향신문, 「울초 폐쇄된 연탄공장 부지 8곳 아파트 단지 탈바꿈」, 1994.05.27. 참고)



청량리 연탄 공장(1963.11.02.)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삼천리연탄 공장 현재 모습(2021.10.20.)



연탄을 싣기 위해 대기 중인 트럭들(2021.10.20.)

● 주로 배달하시던 연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정용으로 십구공탄이 있고 가게용 연탄은 컷어요.¹⁶ 그거는 한 리어카에 오십 장 밖에 못 실어. 작은 거는 백 장 싣는데 그건 오십 장. 커요, 커. 집게 세 개로 집어야 해. 작은 거는 두 개를 집으면 되는데, 가게용 연탄은 크기가 커서 세 개를 해야 해. 가게용 연탄 하나가 가정용 두 장 값이니까 오십 장 값이 백 장 값이지. 한 번 갈 때 한 리어카 밖에 못 실어와. 백 장이면 둘이 가서 가져와야 해. 가격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 차로 받으면 운임을 줘야 하니까 직접 끌고 와서 팔았어. 둘이서 끌면 하루에 최고 많이 끌어오는 날은 천 육백 장 정도 되었던 것 같아.

연탄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 다들 그 전에 사놓으려고 이 사람도 달라고 하고 저 사람도 달라고 하고 그래요. 그러면 갖다 주느라고 죽을 지경이지 뭐. 오 원도 올랐다가 십 원도 올랐다가 오르는 가격은 대중없어요. 연탄값이 오른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가격 오르기 전에 사고 싶어서 주문을 많이 해요. 일단 월급 타면 돈을 줄 테니까 갖다 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월급 받으면 외상값을 꼬박꼬박 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렇게도 줬지요.

16 구멍 수에 따라 구공탄(九孔炭)·십구공탄(十孔炭)·삼십이공탄(三十二孔炭)으로도 부르며, 가정에 쓰이는 일반 연탄은 구멍이 22개이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연탄을 배달하기 어려운 집도 있었나요?

보통 한 집에 한 번에 백 장을 놓는데 어렵게 놓은 집도 있었어요. 지하를 파 놓은 집도 있었거든. 그러면 부엌을 통해서 지하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마당 창문으로 넣어줘야 해. 그럼 나는 개구멍 같은 데로 넣어주고, 우리 아저씨는 안에서 받고 그랬어요. 한 백 장을 넣으려고 하면 구조가 쉬운 집은 금방 하는데, 어려운 집은 이, 삼십 분 걸렸어. 쉬운 집은 지하에 안 들어가고 마당에 광이 있어서 거기에만 가져다 넣으면 됐어. 리어카가 광 앞까지는 못 가, 대문에 못 들어가니까. 대문 앞에 세워 두고 안쪽으로 연탄을 날랐지. 쉬운 집은 한 이십 분도 안 걸렸어. 한 십 분이면 끝났나. 마당에 두고 얼른 갖다 놓고 했지. 또 이층집은 지게, 나무지게를 만들어서 앞에는 여섯 장, 뒤에는 네 장. 그러면 열 장을 올릴 수 있잖아. 지게에는 그렇게 싣고 나는 또 양쪽에 두 개, 두 개를 집게로 집어서 갖고 올라가요. 나는 키가 작고 우리 아저씨는 키가 커요. 그래서 지게에 엮고 내릴 때 남편이 좀 구부린다고 해도 그거 내리느라고 팔이 너무 아팠지. 그래서 지금까지도 팔이 좋지 않아요.

● 배달은 아침 일찍부터 하셨나요?

보통 아침 여섯 시부터 시작하면 오전 내내 일하고 오후 한 시나 두 시쯤 되어서야 집에 가서 밥 먹고, 한 세, 네 시 돼야 천 오백 장, 천 육백 장 끝나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밥이 안 넘어가. 배는 고프데.

우리 집 아저씨가 옛날에는 별로 고생을 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연탄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오다가 구멍가게가 있는데 “이 가게에서 빵하고 우유하고 한 개씩 사 먹고 가자.” 그러는데, 길가에 앉아서 시커먼 손으로 그거 들고 입도 시커먼데 먹고 있으면 남이 욕하잖아. 그래서 “그냥 집에 가요.” 그러면 “나 배가 고파서 못 가.” 그랬지. 그래도 참고 집에 가곤 했어요.

그때는 신발도 운동화가 좋은 게 없어요. 학생들 왜 학교갈 때 신는까만 운동화 나왔잖아요. 그거 사 신었는데 발이 막 얼고 그랬죠. 신발에 물이 들어오니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 연탄 장사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은 어땠나요?

연탄 들여놓기 어려운 집에 가서 놓아주면 마음 좋은 사람은 천 원씩도 더 주고 그랬어요. 그때 돈으로는 오백 원만 더 줘도 많았거든요.¹⁷

못되게 구는 사람이 적어. 좋은 사람이 더 많아. 근데 그때 봤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 나한테 엄청 잘해줬던 아줌마 한 명이 있는데, 작

17 1970년대 연탄 가격은 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도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장당 20~30원대였다. (권보드래, 「연탄 파동과 에너지 정책」, 『경향신문』, 2014.01.17.)

년까지도 석관초등학교¹⁸ 옆에 살았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고 해요. 그 아줌마가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내가 지나가면 커피 끓여서 “이거 먹고 가요.” 하고 가져다주고 그랬는데 작년 가을에 갔다고 그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석관동에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간 사람도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어. 시장을 지나다니다 보면 마주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이고 아줌마 아픈 데 없어요? 아이고 아줌마 건강하세요.”하고 인사하고 그랬어.

“애들은 다 잘 될 거야. 그저 아프지 말어.” 맨날 그러지 뭐. 서로 많이 도와줘요. 지금까지도 만나면 “아픈 데 없죠?” 맨날 그러지. 정말 고맙지. 여기에서 50년 넘게 살아도 싫은 소리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이웃 사람하고도. 일 있으면 내가 뭐 얼른 치워버리고 없애버리면 될 걸, 왜 그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럼 그 사람도 싫고 나도 싫고. 항상 그러지.

● 혹시 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서울 처음 와서 외대 앞에서 살 때, 주인집 아줌마는 딸 둘 키르고 나는 아들 둘 키우는데 그 집 아줌마가 정말 착했어요. 내가 집 청소하고 다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내는 전기세, 물세를 안 받았어요. 집 청소까지 다 해줬는데 어떻게 돈을 받냐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 사람을 내가 못 만나고 있어요. 나보다 젊었으니까 아직은 살아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22길 21에 위치. 1971년 12월 3일에 개교하였다. (출처: 석관초등학교 홈페이지)

겠지. 꼭 그 사람을 만나서 베풀고 싶은데. 주인집 아줌마의 시어머니 되는 분이 나한테 수도 값, 전기세 냈냐고 물어보면 그냥 다 냈다고 하라고 했지. 주인집 아줌마도 다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착하고, 뭐 국이라도 한 그릇 끓이면 가져다주고 가고. “이거 먹고 일해.” 하면서 얼마나 잘해줬다고….

●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지만, 연탄 장사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었을 거 같아요.

그때는 연탄값을 많이 떼어 먹혀서 고생 좀 했어요. 외상값을 잘 안 주는 사람들은 다 떼어 먹어버려. 안 줘 돈을. 그리고는 이사 가버리니까 못 받아요. 사람들이 “네가 너무 착해서 그렇다. 왜 그 돈을 안 받냐.” 그래요. 그때 나한테 연탄 받아서 댄 사람 중에 몇 있어요. 한 사람은 석관고등학교¹⁹ 입구에 살았는데, 남편이 외국 가서 돈을 벌어서 왔어요. 그 후에 나를 만나서, “우리 남편이 외국 가서 돈 벌어서 왔는데 내가 이 집을 팔고 이사 가야 해요. 그래서 연탄값을 다 못 갚아 주고 가니까 나중에 아줌마 집 살 때 내가 보태줄게요.” 하길래 알았다고 그랬어. 이사는 상계동 어디로 간다고 해요. 그런 줄만 알았지 가서는 소식이 없어요. 그랬는데 한 번 목욕탕에 갔더니, 그 사람을 잘 아는 아줌마가 나를 보고 그 엄마가 중풍이 와서 쓰러져서 많이 아프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연탄값 안 갚은 줄 모르고, 나한테 빚진 걸 모르고 말을 한 거야. 나중에 그런 소식을 들었지.

19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0길 30에 위치. 1982년 3월 1일에 개교하였다. (출처: 석관고등학교 홈페이지)

그리고 얄미운 사람들은 또 연탄 백 장을 넣어줘도, 백 장이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연탄을 다 넣어주면 한 번 보고 와서는 백 장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럼 내가 다시 가서 막 꺼내놓고 보여주면서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랬지.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연탄값 꼬박꼬박 주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가을이 되면 추석 지나고 연탄 주문을 많이 해요. 겨울 오기 전에 오백 장, 천 장씩 주문을 하는데 천 장을 넣어주면, 돈을 한 번에는 다 못 주고 매달 월급날에 백 장, 이백 장 값을 나눠서 받고 그랬어요. 그렇게 줬던 사람 중 하나가 나랑 동갑인데 지금은 상계동 가서 살고 있고, 그 집 아저씨도 참 착해요. 고아로 커서 동대문시장에서 수위 일하고 살았는데 “그 아줌마 돈은 때 묶으면 안 돼. 애들하고 잘 살라고 그러는데. 외상 준 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월급 타면 생활비 놔두고 얼마씩 꼭 줘라.” 그랬대. 꼬박꼬박 줬어. 내외가 다 참 착해요. “내가 밥을 덜 먹어도 어떻게든 그 아줌마한테는 연탄값 줘라.” 그랬어요. 지금도 다 건강하게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 착한 사람 너무 많아. 못된 사람이 조금이고 착한 사람이 많아서 지금껏 잘 살지 안 그러면 절대 못 살아요. 우리 동네에 지금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줌마도 내가 구멍가게 가거나 앞에 지나가면 커피 타주고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요. 사람 좋아요. 좋은 사람 정말 많아.

이제 리어카 놓아야지

● 연탄이 기름보일러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셨나요?

그래도 연탄이 기름보일러보다는 싸요. 싸고, 뜨시고. 그래서 옛날엔 연탄을 많이 때고 연탄가게도 많았는데 점점 사라졌지. 그래도 아직 석관동에는 연탄가게가 있어.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여름에는 얼음 팔고, 겨울에는 연탄도 팔고 있어요. 우리하고 늘 같이했던 사람 이야. 가게 이름은 모르고 위치는 석관초등학교 입구 덜 가서, 바로 옆 골목 내려가면 석관시장(돌곶이시장) 입구 들어가는 길에서 하고 있어. 여름에는 연탄을 안 팔아. 겨울에만 팔고 있어. 그 아저씨, 아줌마가. 석유도 하고, 연탄도 하고 얼음도 하고, 세 가지를 해.



현재 석관동에 남아있는 연탄가게(2021.10.20.)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하나 없어졌지 뭐. 지금도 그 삼천리연탄 공장에는 내가 아는 아줌마들 몇 명 하고 있던데. 요새는 여자들도 운전 배워서 차로 연탄을 운반하더라고요. 지게차로 기계에서 막 실어 놔.

● 여름에는 연탄 장사가 잘 안될 것 같은데, 여름에는 다른 일을 하셨나요?

여름에는 거의 안되고, 겨울에만 무지 바쁘지 뭐. 연탄값이 오르고 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죽어나요. 입술이 막 다 일어나고 밥도 잘 못 먹어요. 우리는 새벽 6시에 나가니까 밥해서 차려 놓고 큰아들 하나만 깨워 놓으면 동생들 다 깨워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했어요. 큰아들이 부모 노릇 다 했지….

연탄 일이 많이 없으면 우리 아저씨 뭐 교통정리 나가고, 압구정동 미성아파트²⁰에 가서 수위로 일하고 그랬어요. 압구정동이 부자 동네잖아요. 거기 가서 오래 했어요. 거기 가서 한 지도 이십 년 돼요. 연탄은 조금씩 하면서 거기 나갔으니까. 거기 사람들 참 좋았어요. 수위 그만둔 지는 한 십 년 안 될걸요? 한 십 년 안 돼. 아파 가지고 그만뒀어.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11길 7에 위치. 1차는 1982년, 2차는 1987년 준공되었다.

● 연탄 장사를 마지막으로 하신 건 언제인가요?

애들이 크니까 며느리를 봐야 하잖아. 그래서 우리 아저씨가 “여보, 우리 이제는 리어카 놓아야지. 누가 연탄 장사하는 집 아들한테 딸을 주겠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조금 더 했지요. 남편은 수위 일하면서 하루 노는 날은 연탄 일을 거들여주고, 또 근무하는 날은 그쪽에 가서 일하고. 그러다가 며느리 볼 무렵 되어서는 연탄 치웠어요. 그게 한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끝낸 지는 한 25년 될 거예요. 우리 손자가 지금 군대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연탄가게는 그만두고 내가 52살에 며느리 봤어요.

● 연탄 장사하실 때 자녀분들도 많이 도와주셨나요?

연탄 얘기만 하면 우리 애들이 하지 말라고 해요. 연탄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 고생했다고. 우리 애들이 넷 다 석관초등학교 나왔어요. 우리 큰아들이 석관초등학교 7회 졸업생이에요. 우리가 연탄 장사할 때 애들이 도와주기도 했지. 여기가 전부 밭이라서 리어카가 쉽게 못 올라왔어요. 아들 둘이 연년생인데 학교 갔다 와서 집에다가 가방 내려놓고 와서 많이 도와줬어요. 한 리어카 밀어주면 하나에 백 원씩 준다고 하고 그렇게 모아서 자전거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손을 호호… 불면서 저 굴다리 밑에 와 있었어요. 그때는 장갑도 없었는데, 애들이 연탄 리어카 끄는 걸 도와줬어요. 아들들이 양쪽에서 밀어주면 쉽게 올라왔지. 애들은 자전거 사려고 돈 백 원씩

타서 모으고 이제 자전거 살 돈이 되는데, 엄마 아빠 그렇게 고생하는데 또 다치면 안 되잖아. 자전거 타면 사고 난다고 남편이 못 사주게 해서 사주질 못했어요. 그냥 돈만 모아서 애들 다 줬지.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학교 갔다 오다가 골목에 보면 대문 열어놓고 엄마가 연탄을 넣고 있잖아. 그러면 거기 와서 집게로 거들어주고 그랬어요. 내가 마당에서 두 장씩 가져다주면 우리 아저씨는 받아서 지하실에 갖다 놓고, 또 우리 애들이 두 장씩 집어서 나한테 가져다주면 우리 아저씨가 그걸 받아서 넣곤 했어요.

13

식당 이야기



연탄 장사 이후

● 연탄 장사를 그만두고 식당일을 하셨다면데요? 어떠셨어요?

연탄가게를 완전히 정리하고 상진운수, 연탄 공장, 석관파출소에 다니면서 직원들 식사 챙겨주는 일을 했어요. 삼천리연탄 공장에는 아는 아줌마가 내가 일을 잘한다고 오라고 해서 가서 밥을 해줬어요. 그때 내가 52살이었는데 일단 뭐라도 해야 하고, 또 애들하고 살아야 하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해줬지. 아, 경북식당이라고 파출소 바로 맞은편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잠깐 일을 했었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하던 곳이라 거기서 잠깐 했지.



옛 경복식당 자리(2021.10.20.)

상진운수는 아침에 밥을 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서 해줬는데, 신내동에도 상진운수 버스가 있거든요. 그럼 석관동에서 밥을 해주면 사장님이 신내동에 가서 하루 세 번씩 배식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직접 세 번 배달 가요. 난 아침에만 밥을 해주고 10시에 아줌마 두 명이 더 왔어요. 그럼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점심, 저녁을 돌이

서 하고 나는 아침만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서 내가 아기를 봐야 했거든. 며느리가 직장을 나가니까 내가 오면 나한테 아기 맡기고 출근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애를 보고. 그래서 나는 아침 장사만 했어요.

그때 돈으로 하루 만 오천 원 줬어요. 그걸 오래 했어. 한 십오 년 했을 거예요. 밥을 하다가 그만둔 지는 한 십 년, 십오 년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손주 거의 키워서는 안 했으니깐요. 그리고 또 회사 직원들이 바뀌면 우리도 다 바뀌잖아요. 신내동 상진운수는 철거하라고 해서 여기 석관동으로 와서 합치고, 직원들이 다 바뀌는 바람에 나도 나왔지.

소장이 나한테 참 잘했어요

● 석관파출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 큰아들 장가갈 무렵에 석관파출소에서 밥을 해줬는데 거기 소장이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나도 경상도 사람이라 그런지 소장이 나한테 참 잘했어요. 한 번은 술 취한 사람이 파출소에 와서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나는 2층에서 밥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당장이라도 올라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서 문을 꼭 잠가놓고 밥을 했어요. 소장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술 취한 사람이 온줄 알고 안 열어줬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도 사무실에 전화는 있었으니까 밑에서 전화를 한 거야. 소장님 올라가니까 빨리 문 열어주라고요. 소장이 올라오더니 그래요. “밑에 사람들 다 죽어도 여기에는 절대 안 오니까 문 열어놓고 편하게 밥하세요. 절대 여기 못 올라와요.” 그러더라고. “나 무서워서 그래요” 그랬더니 “겁내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랬어.



석관치안센터(옛 석관파출소 자리, 2021.10.20.)

우리 큰아들 결혼식을 새소망예식장²¹에서 하는데, 국하고 밥은 그
 예식장에서 먹고 술이랑 음료수도 가져오면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
 에서 돈을 다 지불하고 먹어야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파출소 소
 장한테 가서 다 거기 거 먹어야 한단데 돈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파출소장이 직접 예식장에 가서, 우
 리 식구 밥 해주는 아줌마가 머느리 보는데 왜 음식을 못 가지고 오
 게 하냐고 그랬죠. 그렇게 하니까 예식장에서 음식을 다 갖고 오라
 고 했어요. 예식장 식당에서는 그냥 국과 밥만 해주고. 하여튼 돈 들
 어가는 건 다 소장이 얘기해서 많이 어렵지 않게 해줬어요. 잔치하고
 음식들이 많이 남아서 파출소로 다 가져와서 나눠 먹고 했어요. 흥
 어회 무친 거, 파래 무친 거, 뭐. 맛있는 거 남은 거 다 가져다가 줬어
 요.

그때 거기 있던 경찰들은 내가 쓰레기도 못 버리게 했어요. “아줌
 마! 내가 버려 줄게, 내가 버려 줄게.”하고. 참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
 다고. 진짜 잘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소장도 다른 곳으로 발령
 받아서 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몇 명이나 다른 데로 가고. 지금도 그
 자리에 파출소가 있긴 한데 이제는 밥 안 해줘요.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49-1번지에 위치했던 예식장이다. 2000년대 후반까지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2009~2010년 사이 새로운 건물인 장위뉴타워가 들어섰다.

운전사들 밥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았지

● 상진운수 직원식당의 구조는 어땠어요?

그때 식당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그냥 네모 반듯했어. 계단 타고 내려가면 한쪽에는 제법 큰 창고가 있고요. 반대쪽에는 주방과 식탁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운전사들이 밥을 먹는 곳이고, 식탁을 쪽 놔 놓았지. 밥 먹는 곳 안쪽으로 들어가면 주방이 있었어요. 주방을 크게 만들어놓고 주방에서 밥해서 식탁 있는 곳으로 내주고.

식판 한쪽에는 밥 뜨고, 다른 쪽에는 국을 대접에 떠가지고 주고 한 개, 두 개, 세 개는 반찬이야. 그럼 반찬은 세 개 나란히 놔 놓으면 자기들이 가져가고, 밥은 내가 주고 국도 내가 주고. 그럼 이제 갖고 가서 먹어. 먹고 나면 쓰레기 붓고 식판은 놔두면 착착 담아서 물에 담가 가지고 설거지하고.



석관동에 위치한 상진운수 (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 상진운수 직원식당에서 근무하실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내가 밥을 해 주는데, 운전사들 밥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았지. 나만 있으면 기사들이 와서 막 좋다 그래. 밥 많이 먹는 사람도 있어. 조금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많이 먹는 사람은 눈치 보이잖아? 그런데 옛날에 어른들이 “목마른 사람 물 주고, 배고픈 사람 밥 주면 돈을 주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 인상 찌푸리지 말고 줘라.” 그랬거든. 그래서 내가 많이 챙겨줬어요.

그중에 밥 많이 먹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일요일만 되면 그 아저씨가 지하로 계단 두두두두 내려와서 “아주머니요! 저 왔어요!” 했지. “그래. 어서 와요. 어서 와.”라고 하면 자기 밥 좀 많이 주래. 나는 아침에만 하고 나오고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저씨 밥 많이 먹으면 막 눈치를 쫓나 봐요. 언제 한 번 가니까 아줌마들이랑 막 싸웠대 그래. 그래서 나 있을 때는 밥 실컷 먹고 가시라고 했지.

나중에 들었는데, 밥 많이 먹는 아저씨가 죽었다 해. 아버지, 아내, 아기 하나 이렇게 세 사람이나 놔두고 죽었다고 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일요일만 되면 그 아저씨가 막 내려오는 거 같았어. 그래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 운전기사 중 어르신께 싹싹하게 잘했던 사람 있었죠?

많아요. 못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아침에 식당에 나가면, “아줌마, 잠 못 잤지?” 하면서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도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몇 명 봐요. 며칠 전에도 여기서 만나서 “아, 할머니 여기 있어? 건강해?”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건강하다고 하니까 “할머니 건강해요…” 하고 가더라고요.

가끔 주말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 사만 원을 더 줬어요. 아침에 일한 건 만 오천원 받고 낮에 이만 원, 저녁에 이만 원 해서 사만 원을 더 줘. 그렇게 일하는 날은 중간에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한쪽에 창고가 있었는데, 중간에 시간 빌 때 거기 가서 이불 하나 깔아놓고 쉬곤 했어요. 너무 출근 했지. 기사들이 두 시에서 세 시까지 밥 먹으러 안 오거든. 그 시간에 거기서 잠깐 자고 있으면 이제 세 시 넘어서 기사들이 들어오면서 “할머니, 밥 줘요!” 그러면 내가 창고 쪽에서 저기서 나오잖아요. 그때 기사들이 나보고 “좀 더 자요. 내가 밥 퍼먹고 갈게.”라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이니까 내가 일어나서 다 했지.

그 기사들도 지금은 판 데로 많이 갔지요. 한 서너 명은 아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저기 가다 보면 버스 세우고 문을 탁 열면서 “아줌마!” 하고 부르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그럼 내가 길 가다가 깜짝 놀라지. 한 번은 버스 문을 활짝 열길래 놀랐는데, “아줌마, 나야 나!”하고 가더라고요. 지금도 나를 보면 다들 잘해요. 진짜 기사들 착한 사람 많아요. 못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내가

그래서 먹고 산 거 같아요. 진짜 나한테 잘해줬던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살았어요?

● 식당 일을 하다가 어려운 적도 있었지요?

한 번은 배가 아팠어요. 우리 손자가 두 살 먹었을 때니까 그때가 한 1997년쯤 될 거예요. 내 쓸개가 다 노화가 됐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뭐 잘못 먹고 얹힌 줄 알고 계속 일을 하는데 밥을 퍼주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보다 더 아픈 건 없어. 그래서 수돗가에 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 봐도 안 되고, 화장실 가서 소변 봐도 안 되고, 대변 봐도 안 되고 식은땀만 찰찰 찰찰 흘려요. 그래서 옆에 가서 웅크리고 쉬고 있었는데 한 기사가 와서 밥을 달라 그래. “나 여기 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밥을 못 떠서 그래.” 했더니 “아니, 아니 거기 가만히 있어요. 내가 알아서 밥 먹고 갈게. 밥 내가 떠먹고 갈게.” 하더라고요.

그 날 저녁에 집에 와서 며느리보고 열 손가락을 다 따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얹혀서 도저히 저녁밥을 못 해주겠다고 했더니 “어머니 왜 그래요?”하고 며느리가 다 따줬지. 근데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여기 24시간 점포 가서 식혜 사 먹어 봐도 안 되고, 사이다를 사 먹어 봐도 안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상계백병원²²에 가서 검사를 한 번 하

22 정식명칭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이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42에 위치하며 1989년 개원하였다. (출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홈페이지)

니까 쓸개가 다 망가졌대. 의사가 하는 말이 “환자분, 어떻게 이렇게 참고 살았어요?”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수술을 하는데 개복수술을 하면 한 달 정도, 한 이십 일은 애를 못 안고 못 업는대요. 수술 부위가 벌어지니까요. 내가 애를 안 봐주면 며느리가 직장을 못 가서 내가 두 살 먹은 우리 손자를 업고 안아야 하는데…. 그래서 결국엔 레이저로 네 군데 뚫어서 수술했어요.

개복수술을 해야 후유증이 없는데 그렇게 못해서 후유증은 좀 남을 거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더러 아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많이 울었어요. 수술해준 의사가 하는 말이 “조금만 상한 거 먹어도 쓸개가 없어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조심하세요.” 상한 거는 먹으면 안 되고 과식해도 안 되고 조심하고 살래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면서 살고 있어요.

14

우리 가족



우리 아저씨는 참 착했어

● 바깥 어르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아저씨는 참 착했어. 술 담배도 안 하고, 정직해요. 자식들 가르치려고 열심히 일했지.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사람이 참 좋았어요. 우리 아저씨는 발소리도 잘 안 났어. 석관동에 세를 살 때 집주인이 “혹시 아저씨 어젯밤에 왔어?”하고 물어봐서 “예.” 그러면, 발소리가 없었다는 거야. 늦게 오면 창문에 와서 두드렸지 절대 대문은 안 두드려요. 창문에 와서 똑똑 두드리면 내가 문 열어줬지. 그리고 말 한마디도 남한테 나쁘게 안 했어요. 또, 민방위 훈련을 받으러 가면 제일 먼저 일등으로 나서서 석관초등학교 앞에 가서 서 있던 사

람이었어요.

연탄 공장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우리 아저씨하고 나를 보면 좀 안타까웠나 봐요. 통장들이 동사무소에 신고해서 우리를 도와 준다고 그래. 그러기에 “나는 내 힘으로 애들 가르치고 싶지, 도움을 받으려 나온 게 아니에요. 말만 들어도 고마우니까 그거는 취소해주세요.”했지. 내가 애들을 뿔뿔이 가르치고 직장도 보내지 그런 거 타 먹지 않는다고요.



남편 김오영 님



잠원 동아아파트 관리원 사원증

수위 일을 한 20년 했을 거예요. 다른 데서도 일을 하긴 했는데 압구정동 미성아파트에서 가장 오래 했어. 십 원도 남의 것이라면 벌벌 기고, 내 것만 썼지. 우리는 십 원도 남의 돈은 함부로 못 했어요. 그러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지면서 수위를 그만뒀어요.

우리 아저씨가 6년을 아파 갖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6년을. 그렇게 술, 담배도 안 하는데 뇌경색이

오고 파킨슨이 오고 그러더니 또 조금 이따가 풍이 와요. 중풍이 오고…. 세 가지 병이 같이 와서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병원에 가도 안 되더라고요. 요양원 간 지 한 달 반 만에 갔어요. 우리 아저씨 가기 전에 본인이 화장 안 한다고 애들 귀에다 대고 말해줘서 시골에 가서 매장했어요. 안동에 가서 엄마 옆에, 시어머니 옆에다가 매장해놓고 왔어요. 올해도 별초 갔다 왔어요. 애들이 다 다니지. 아빠가 화장하는 걸 싫어하니까 매장하자 그래서 매장해 났어요.

비 오는 날에는 청량리시장에 가요

● 자녀들이 자랄 때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연탄 장사 할 때 비 오는 날이면 연탄이 잘 안 나가잖아요. 눈 오는 날도 그렇고요. 그럼 봄에 딸기 같은 거 나오면, 우리 아저씨가 비 오는 날에는 청량리시장에 가요. 비 오는 날은 딸기가 싸거든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상인들이 잘 안 사가니까요. 그럼 양은 다라이(たらい, 대야)로 하나 가득 사 와서 애들은 좋은 거 골라서 씻어주면 맛있게 먹고, 넷이 먹으니까 많이 먹죠. 애들은 어려서 뭇도 모르고 갖다 놓으면 씻어서 막 먹기가 바빠요. 그러면 좀 안 좋은 거는 전부 꼭지를 따갖고 씻어서 찜통에다가 딸기잼을 한 통씩 만들어요. 그걸 솥에 넣고 설탕 조금 넣고 몇 시간 푹 끓여서 딸기잼을 만들어 놔요. 식으면 병에다 옮겨 놓고. 한 다라이면 많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식빵 사다 놓으면 애들이 발라서 잘 먹었어요.



1979년 청량리시장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청량리 청과물시장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우리 둘째 아들이 가끔가다 그래요. “엄마, 우리가 딸기 먹고 싶다 고 하면 아빠가 봄에 비 오는 날 청량리시장 가서 딸기 사다 주고 실 컷 먹고 나머지는 끓여서 잼 만들어서 먹었지?” 지금도 우리 애들이 그래. “우리 아빠 비만 오면 청량리에 딸기 사러 갔지.”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옛날 생각에 마음이 좀 아파요. 지금 도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엄마, 비도 오고 아빠 생각나는데 딸기 사 러 갈까요?” 그래요.

● 자녀분들과 나들이나 소풍은 안 가셨어요?

예전에 여기 근처 사는 사람들은 중랑천하고 우이천에 많이 놀러 갔는데, 우리는 잘 안 갔어요. 시간도 없고 돈이 없는데 어딜 가. 그 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가끔 “엄마, 우리 어렸을 때는 수영도 한 번 못 가봤네.” 그래요. 그럼 내가 그래요. “너희들이 벌어서 가라. 돈이 없었는데, 뭐.”

우리 큰아들 국민학교 1학년 때였나, 소풍날인데 가기 싫다고 울고 불고해서 막내까지 다 데리고 같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아저씨는 시골에 가 있어서 나 혼자 넷을 데리고 다녀왔지. 거기가 공릉동인가 그럴 거예요. 우리 큰 애 선생님이 점심때 나한테 오더니 이 넷을 데리고 어떻게 따라왔냐고 그러셨어요. 애가 울어서 도저히 안 되겠는데 어떡해.



1974년, 첫째 아들 소풍 날 공릉동에서

애들 어렸을 때는 자전거도 하나 못 사줬어. 한번은 우리 둘째 아들이 취직하고 회사에서 추석 선물로 자전거를 받았어. 어릴 때 자전거를 못 탔으니까 선물로 받아서 좋다고 집까지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와서 우리 집 2층 계단에 갖다 댔는데 도둑놈이 훔쳐 가버렸어. 도둑놈이.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쉬워했던지. 근데 어디 가서 찾아요. 찾을 방법이 없지.



1976년, 둘째 아들
석관초등학교 입학식 날



자녀들과 함께한 나들이

자녀들의 성장

● 자녀분들 학창시절에는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 큰딸이 석관고등학교에 다닐 때 일인데, 큰딸 학교 선생이 석관동 골목으로 가는 걸 보잖아요. 내가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내 딸 선생을 만나면 리어카를 갖고 막 골목으로 도망가서 숨었어요. 그 후에 딸 대학교 원서 쓸 때 오라 그래서 갔더니 선생이 나를 붙들고 얼마나 울던지. 왜 도망가냐고, 도둑질도 안 했고 애들 가르쳐서 잘 살려고 했는데 왜 숨고 도망가냐고. 그러지 말고 떳떳이 다니래. 무슨 죄를 지었기에 도망가냐고. 돈 벌어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 건데, 애

들이 그렇게 착하고 잘하는데 왜 그러시냐고. 내가 도망가는 거 보고 선생님도 막 울고, 그 일 있고 나서 선생님이 우리 딸한테 “태임아, 너희 어머니 오늘도 연탄 하시지?”하고 물었대. “네, 우리 엄마 연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절대 숨어다니지 마시라고 해라.” 그랬대요. “얼마나 떳떳한 일인데.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도망을 가시는지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엄마가 인물이 못났나, 아버지랑 엄마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애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게 너무…” 좀 도와주지는 못해도 미안하다고 했대.

한번은 또 큰딸 고등학교에서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딸이랑 다른 친구 하나랑 같은 점수였대. 그때 우리는 집이 있었고 동점인 친구는 집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장학금을 주었나 봐. 그래서 우리 딸이 저녁에 오더니, “엄마.”하고 불러.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깐 “엄마 이 집 팔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동점이 나왔는데 딸이 장학금을 못 받고 개가 집이 없어서 그 친구한테로 갔대. “그래도 장학금을 못 받아도 이 집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엄마 알았어.” 그랬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오시면, 우리 애들 보고 ‘싸워서 지면 이긴 거고, 이기면 진 거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 애들이 다 착한 것 같아.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는 바보냐고 했지. 지면 이겼다고 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애들을 타일러 줘서 지금까지도 우리 애들은 남한테 조금도 싫은 소리 안 해요. 넷 다 남한테 못 되게 안 굴어요. 지금까지도.



석관동 집에서 촬영한 시아버지와 자녀들 사진

큰아들의 결혼

● 큰아드님 결혼시킬 때는 어떠셨어요?

우리 큰아들은 석관동 새소망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맏며느리가 강원도 철원 사람인데 우리 사돈들은 이북에서 넘어와서 육 남매를 낳고 키웠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그 집 막내딸이고,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사돈댁이 며느리한테 “네가 사 남매 만이로 가서 어떻게 시집살이를 하겠나?”하고 걱정을 많이 했대요.

우리가 강원도 철원으로 가서 상견례를 했는데 사돈들이 다들 인상이 좋으시더라고요. 바깥 어른도 키가 크고 안 어른도 키가 크고 참 인물이 좋아요. 상견례 하러 가서 점심을 먹고 나니까 우리 안사돈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내 딸 하나 사돈한테 충분히 맡길 수 있겠어요. 사돈 인상 보니까 나 오늘부터 가서 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사 남매 만이로 간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우리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밖에 못 해서 라면도 잘 안 끓여 봤는데. 가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나 오늘은 가서 편히 잘게요. 나 이제 맡길게요.” 그렇게 했어요.

결혼식 날은 식 끝나고 나오니까 바깥 어른이 앞에 탁 서 있어요. 내가 얼른 쫓아 내려오면서 “사돈, 사돈은 왜 여기 있어요?” 하니까 내 손을 꼭 붙들고 “오늘 내가 막내딸을 사돈한테 맡기고 가니까 우리 딸 잘 봐줘요, 잘 봐줘요.”라고 하시면서 바깥 어른이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새끼가 넷인데 내가 왜 남의 딸이라고 못 해주겠어요? 나 절대 안 나무라고 내가 타이르고 가르치고 잘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오늘은 가서 잘 잘게요.” 내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큰아드님 결혼할 때, 바깥 어른신하고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이제 애들 길러서 다들 직장도 구하고 며느리보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저씨가 그때 “여보,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애들은 다 잘 가르쳤으니까.”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 “춤을 추러 다니든지 술을 먹든지 너는 어디로 가든지 행동만 잘 해라. 자식한테 욕 먹이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우리 아저씨가 내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되니까 그걸로 만족했지.

● 큰아드님 결혼식 날은 어떤 옷을 입으셨어요?

그때는 신랑 쪽은 푸른색 그런 거 입었지. 나는 푸르스름한 은색 한복 입었고. 내가 직접 가서 맞췄지, 누가 해줘요. 아무도 없어 우리 동기가 없어. 내가 해 입었지, 뭐. 예단비가 왔잖아요. 그때 우리 아저씨는 가다마이(かたまえ, 양복) 해 입고 나는 한복을 해 입고 우리 숙모도 한복을 한 벌 해주고. 우리 애들도 옷 해 입고.

색깔을 내가 고르면 한복집에서 해주잖아. 동대문에 있는 한복 가게를 가면 값이 싸요. 거기 가서 했어. 푸르스름한 은색일 거예요. 사람들이 다 참 색깔 이쁘다고 난리를 쳤어. “어마이가 좋으니까 옷도 좋다.” 막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우리 아저씨가 좋아하니까 가다마이 해주고. 그저 돈 생기면 또 해주고 이랬어요. 우리 연탄가게 옆집에 ‘런던양복집’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싸게 해주니까, 양복 좋은 거



큰아들 결혼식 날

해 입었어요.

● 큰아드님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세요? 다른 자녀분들은요?

큰아들은 이문동에 살아요. 엄마, 아버지를 놔두고 먼 데로는 못가고. 만이라도 한 데 살기는 어렵잖아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우리 손자 여섯 살 때까지는 우리 집 아래층에 같이 살다가 그 이후에 이문동으로 이사 나갔어요. 멀리는 못 간대요. 엄마, 아빠 없으면 석관동을 떠도, 엄마 아빠 있는 한에는 석관동 근처를 못 벗어난대요.

큰딸은 파주에 살고, 둘째 아들은 영등포 살아요. 막내딸은 결혼 안하고 나하고 같이 살아요. 지금 중학교 선생인데 시집 안 간대요. 엄마, 아빠가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지는 엄마한테 효도하고 살 거라고 지금 같이 살아요.

15

우리 동네, 석관동



2000년대 석관동 일대(출처: 성북마을아카이브)

연탄재로 뒤덮인 석관동

● 예전에 석관동에 연탄 공장이 많았을 때,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옛날에는 연탄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서 물차 없이는 동네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여기 석계역 가는 방향에 집값이 얼마나 쌌는데요. 연탄 가루가 자고 나면 시커멓게 쌓이고 자고 나면 또 쌓이고 했어요. 연탄 재료 쌓아둔 곳에서 계속 날아오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거기가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여기보다 거기가 더 비싸요. 석계역이 생겨서요.

누가 석관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방을 닦아보니까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연필 깎으면 연필깎이 통 있잖아. 그 연필심 깎은 걸 부으

면 바닥이 시커메지잖아. 애들이 방바닥에 그렇게 해놓은 줄 알고 학교 갔다 오면 혼낸다고 버르고 있었대. 그 엄마가 나와서 우리 방이 시커메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애들 오면 혼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이 “애들 혼내지 마세요. 저기서 연탄 가루가 날아와서 그런 거예요.”라고 말해줬대. 이 동네가 그런 줄도 모르고 집사서 왔다가 그런 거예요.



1978년 칠표연탄 공장 작업 모습 (출처: 서울사진아카이브)

● 그럼 창문도 못 열었겠네요?

창문을 어떻게 열어요. 안 열어도 방바닥이 다 시커먼데. 그때 흰색 옷도 잘 못 입었어요. 공장 앞에서 연탄재가 막 날리고 지붕도 없는 기차 화물칸에다가 연탄 재료를 싣고 와서 막 쏟아부으니까. 지금 석관동 두산아파트²³ 있잖아요. 아파트 짓기 전에는 그 자리에 연탄재를 산처럼 쌓아놨어요.

2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48길 16에 위치한 아파트. 1998년 4월 18일에 준공되었다.



석계교에서 바라본 석관동 두산아파트(2021.10.20.)

그 연탄 공장이 여기 집들보다 먼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싫으면 우리가 가는 거지. 절이 떠나는 게 아니라 스님이 가야지. 두산아파트 짓고 나서 변한 거예요. 1998년도쯤에 아파트가 생겨서 지금은 괜찮아졌지 그 전에는 안 변했어. 그 자리에 가루가 산처럼 있었다니까. 거기에 재료를 쌓아 놓고, 공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옮기고…. 연탄을 찍은 거지. 그냥 바깥에 내놔서요. 여기서 제일 피해 본 게 이쪽이고, 의릉 있는 쪽은 좀 덜 하지. 여기서 전국 각지로 다 나가니까 그 재료의 양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지.

지금은 연탄 공장이 한 개 남았는데, 재료를 바깥에 내놓진 않고 창고처럼 만들어서 거기 안에다가 넣어둬서 예전처럼 가루가 날리진 않아요. 지금은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고 덮어놔서요. 그래서 날아오지는 않지. 대량으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많이 찍어 내지도 않는 것 같아.

석계역 물난리

● 석계역과 관련해서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내가 석관동에 처음 왔을 때는 연탄 공장만 있던 동네였는데 점점 개발되고 하면서 석계역이 생겼잖아. 근데 석계역 공사할 때 물난리가 나서 석관동 바닥이 온통 물바다였어. 집집마다 물이 다 들어오고 넘치고 했어요. 그게 1998년쯤 될 거예요. 그해에 비가 정말 많이 왔는데 그때 6호선 개통 때문에 석계역이 한창 공사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공사 현장 때문에 하천 폭도 좁아져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물이 넘쳐서 침수된 거예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성북구청에 갔다 오고 그랬어요. 너무 피해가 크니까 보상이라도 받으려고... 이경애²⁴씨가 서울시의원 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손자를 업고 갔다가 아기가 막 울고 그래서 이경애 씨가 나를 동네까지 태워다 줬어. “언니, 애하고 집에 어떻게 가요.” 하면서 그때 나랑 우리 동네 사람 몇이랑 같이 태워다 줬다고.

지하 집들은 물이 차서 냉장고가 등등 뜨고 그랬어. 지하에 연탄 넣어놓은 집은 쌓아둔 연탄이 다 쓰러지고... 석계역 가는 쪽에는 계단이 다 물에 잠겨서 임신한 아주머니가 지나온다고 고생했던 장면도 떠올라요.

우리 건물 지하에 두 가구도 피해를 봤어요. 그때 우리 집은 지하

24 이경애(李敬愛, 1959~)는 제5대, 제8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지역구는 장위동과 석관동을 포함하는 성북구 제4선거구로, 의원 활동 당시 권춘자 구술자를 만났던 것으로 보인다.

방들만 그랬지, 1층부터는 괜찮았어요. 지하 방들은 피해를 많이 봐서 석관고등학교에 가서 밥 먹고 했잖아. 그때 피해 본 주민들을 위해서 석관고등학교에서 밥을 다 해줬거든요. 집 지어서 나는 2층에 살고 밑에는 세를 줬더니, 두 집이 그렇게 되어서….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본 집들이 일정 금액을 넣고 고소를 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그걸 안 했지. 그때 돈을 넣은 사람들은 보상을 다 받았어요. 재판을 다 해서 몇 년 전에 보상을 다 받았더라고. 나는 못 받았지. 이쪽에 중랑천이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비만 오면 애가 탔어요. 물이 들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동부간선 수중로’ 가로등만 빼꼼

중랑천은 가도가도 끝없는 흙탕물이었다. 6일 새벽 내린 집중호우에 중랑천 주변의 단층집들은 처마 밑까지 물이 들어쳤고, 상가 건물들은 1층이 물에 잠겨 간판 일부가 겨우 고개를 내밀었다. 바로 옆의 동부간선도로 흔적은 군데군데 ‘머리’만 내민 가로등이 전부였다.

중랑천 일대에 물이 넘치기 시작한 것은 이날 새벽 5시께. 도봉산과 수락산에서 내려온 골짜물이 불어나 상류 지역 일부가 순식간에 범람했다. 도봉구 방학동 주민 김상훈(54·사업)씨는 “새벽녘에 벌써 무릎까지 물이 차 급히 가족들을 깨워 교회로 몸을 피했다.”고 말했다.

장대비는 상대적으로 지형이 낮은 도봉구 방학동·쌍문동, 노원구 월계동, 성북구 석관동 등 중랑천 서쪽 지역을 집어삼켰다.

(중략)

중랑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흙탕물 속에 묻혔던 처참한 모습들이 하나하나 드러났다. 중랑구 중화동 이문철교 다릿발에는 흰색 냉장고가 비스듬히 걸려 있었고, 장안교 근처 중랑천변에는 둔치 정리 작업에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포클레인이 황톳빛 물살을 뚫고 나타났다.

(후략)

『한겨레』, 1998.08.07.

비오면 水路(수로)되는 지하철工事場(공사장)

-환승통로 ‘물막이’ 근본대책 시급

이번 집중호우로 지하철 공사장과 환승통로의 수방 대책 필요성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지하철 공사장은 윗부분이 뚫린 지하터널이어서, 비만 오면 물이 차게 돼 있다. 이때 장비들을 대피시키면 직접적 피해는 없지만, 문제는 환승역 공사장일 경우 환승통로를 통해 물이 이동, 운행 중인 기존 지하철망까지 물바다로 만드는 ‘동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중략)

이번 비로 시내 지하철 공사장 23곳 중 6호선 공릉-석관동 일대, 7호선 구로-반포동 일대, 8호선 암사동 일대 등 11곳이 침수됐다. 완전 침수된 중랑천변 6-12공구의 경우, 지하 터널(길이 8백여m, 높이 20m. 폭 30m)에 48만여t의 물이 찬 것으로 집계됐다.

(후략)

『조선일보』, 1998.08.10.

한천마을의 탄생

● 석관동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는데, 선생님이 계신 동네는 재개발 소식이 없나요?

여기가 재건축된다고 하다가 해제되었어요. 2012년도에 재개발 허가가 떨어졌는데 열두 집이 반대해서 해제되고, 한천마을이 생긴 거예요. 서울시 84개 마을 중 6개의 마을이 성북구에 있거든요. 여기 석관동에 한천마을부터, 소리마을, 정든마을, 삼태기마을, 삼덕마을 등등 이런 식으로 다 생긴 거예요. 재개발 찬성파, 반대파가 있었는데 상가 쪽으로는 다 반대파였어요.

그 사람들은 월세가 나오니까 다 재개발을 반대했지. 그래서 무산됐어요. 우리는 다 찬성했는데 상가 쪽은 거의 반대를 해서 그때 서울시에 민원을 계속 넣고 하니까.... 지금은 상가 주인들이 대부분 바뀌었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반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나갔어요.

재개발이 취소되고 한천마을이 생긴 대신 이사 가지 않고 집을 고치면 정부에서 ‘서울가꿈주택’²⁵이라고 50%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천만 원 같으면 오백만 원을 주는 거야, 집을 고치면. 그래서 한 3년 동안 다 고쳐서 지금은 이 동네가 깨끗해요. 지붕서부터 외벽 등등 모든 걸 수리했으니까. 그 대신에 공사비의 반은 본인 부담이에요. 지금 한천마을은 다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사

25 노후한 단독·다가구주택을 수리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였다. (출처: 시사상식사전)

가지 말고 너희들이 마을을 고쳐서 써라.”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가꿈주택’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석관동에서의 활동

● 석관동 주민분들과 친해진 계기가 있으신가요?

옛날에 장사할 때 오며 가며 봤던 사람들은 지금은 거의 없어. 한천 마을 사람들이랑은 여기 재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나도 재개발 찬성했거든요. 그때 찬성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다가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게 된 거예요. 집도 가깝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다니고…. ‘서로 도와주자.’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한테 잘하고. 나도 잘하고. “언니, 언니.” 하고 나한테 잘해요. 내 가족들은 다 대구나 안동, 봉화에 살고 하지 여긴 아무도 없고 나 하나뿐이에요. 너무 외롭잖아. 그러니까 나도 동네서 아무라도 친하게 지내면 좋지 뭐.

옛날에 서울 올라와서 버스 타고 석관동 종점에 내려서 자녀들 집을 못 찾아가던 시골 사람들 집도 내가 많이 찾아줬어요. 내가 외롭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들, 딸들한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부모 찾아줬다고. 나는 연탄을 하니까 주소를 다 알잖아. 빠삭하지, 뭐.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뭘 사서 부모님을 모시고 연탄가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랬어요. 우리 애들 용돈도 주고. 이 동네에 처음 온 사람들이 종점

에 내리긴 하는데 주소가 있는데도 집을 잘 못 찾더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찾아줬어요.

일 할 때도 다른 사람들 덕 많이 봤어요. 잘 사는 집에 연탄 배달 가면 지하실에서 식혜고 음료수고 꺼내서 “어젯밤에 제사 지냈어. 이거 먹고 가. 배고픈데 이거 먹고 가.” 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이제 다 죽고 다 이사 가고 많이 없지만…. 진짜 칭찬 많이 받았어요. 나도 남한테 못 되게 안 해요. 내가 손해 보면 손해 보지, 뭐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안 싸워요. 세월이 가면 다 알게 되는데 싸워서 뭐 하냐고. 지금 까지도 안 싸워.

● 한천마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동네에서 활동 한지는 한 5, 6년 됐지. 내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아직 돈으로는 남을 못 도와줘요. 그래도 힘닿는 데까지는 다 도와줘요. 내가 힘닿는 데까지는.

주민들이랑 같이 음식을 해서 ‘주민배송단’이라는 것도 하고, 뭐 냄비 받침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할 줄 모르면 못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 지금도 봉사 다 하고 있어요.



한천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장 오른쪽이 권춘자 님)
(출처: 한천마을 주민공동체)

우리 집이 있는 석관동

●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언제 지으신 거예요?

원래 그냥 단층 주택에 살았는데, 그 자리에 2층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집 지은 지가 한 35년 됐나. 조그마한 거 건물 한 개 사서 다 세 주고 방 한 개만 쓰고 사니까. 그렇게 벌어서 애들 학교 공부시키고 결혼도 시켰지.

예전에는 땅이 있으면 시공사에서 거기에 집을 지어주고, 처음에

전세금을 받아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땅 주인집이 사는 2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1층이랑 지하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전세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 후에는 내가 돈을 벌어 놓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고 그다음에는 월세로 돌려서 새로 세를 냈지. 지금은 지하에 잘 안 산다고 하지만 그때는 세가 잘 나갔어요. 지하에 두 칸, 1층에 두 칸. 주인집 한 칸 이렇게 지었죠. 지금도 밑에 층은 세를 주고 있고 나는 2층에서 살고 있어요.

● 한 동네에서 50년간 사셨는데, 석관동의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을까요?

살다 보니까 버스 종점에서 가까운 데다 또 석계역이 생기고 나서 교통도 좋아졌고, 이문동도 가깝고 시장에는 물건들이 싸요. 골목 시장이 지금 다 죽었는데 옛날에 마트가 없고 골목 시장만 있을 때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갔지. 물건들이 전부 싸거든요. 청량리시장 못지 않게 싸요. 여기가 그랬어요. 멀리 안 가도 되니까. 여기서 사지 뭐. 지금도 여기는 다른 동네보다 싼 편인 것 같아. 요즘은 청량리나 경동시장도 잘 안 가요. 여기가 좋아.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랑 친하고 얼굴을 알다 보니까 뭐 재고 남는 거 한 단 더 주고. “이거 갖고 가서 삶아 먹어.” 하고 더 주고 그래요. 서로 오래된 사이니까. 여기 아줌마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석관동이 청량리역이랑 가깝잖아. 고향에 가려면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가면 좋거든요. 청량리 중앙선을 타고 영주까지 가고

봉화에 가려면 영주에 내려서 갈아타면 되거든. 석관동은 청량리역이 가까워서 참 좋아요. 시골 어른들도 청량리역에서 버스를 타고 석관동 종점까지 와서 내리면 찾아오기가 좋지. 지금의 261번 버스가 옛날엔 48번, 47번 이랬거든. 버스 종점도 다른 데로 안 가고 계속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어른들이 서울에 와서 택시 타고 여기와도 되고, 안 그럼 버스 타고 오면 되고. 그래서 다른 데로 안 갔어.

●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여기 와서 아무 재난이 없고 뭐 손해나는 게 없으니까 잘 살고 있지. 애들하고 그냥 살기 좋고. 집 잘못 팔고 가면 안 돼요. 이사 잘 가야 해. 이사도 함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긴 아무 탈 없어서 그냥 살고 있어. 누가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50년 살았는데 뭐... 아무 데도 안 가. 그동안 계속 봐왔던 아는 사람도 많고. 이사할 계획은 없어요. 그대로 살았어... 어른들 찾아오기 좋고, 우리도 고향 내려가기 좋고 하니까. 석관동에서 오래 살았어. 진짜 오래 살았어.



에필로그 Epilogue

누군가의 삶을 들여다본다는 건 그의 삶의 즐거움과 고통 그리고 보람을 체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주민기록단 활동은 제게 조개 껍질을 떼어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과도 같았습니다. 구술자 권춘자 님과의 대화는 기억의 공간에 놓인 파편들을 한뭉치에 꺼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조개껍질 같은 파편들이 권춘자 님은 물론 듣는 사람의 마음도 찌르고 베는 아픔을 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개껍질로 엮은 목걸이가 만든 사람이나 목에 건 사람에게나 귀하고 자랑스럽듯이, 권춘자 님의 삶의 여정 역시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주민기록단으로 참여한 저에게도 자랑스러운 삶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힘든 삶을 살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세상에 대한 불평이 많을 텐데, 권춘자 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권춘자 님은 여전히 고운 성품을 유지하시며 누군가를 칭찬하는 분이셨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권춘자 님의 말씀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주민기록단 활동으로 기록의 중요성과 방법을 배운 것 이상으로 사람에게 대한 긍정적 관점을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종욱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사학과 한국현대사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신수민입니다. 평소 구술사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렇게 성북구 주민 기록단으로 활동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구술을 받은 권춘자 선생님은 저희 할머니와 연세가 비슷해 두 분의 삶을 비교해보며 재미있게 구술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권춘자 선생님이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살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같은 마음가짐이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더욱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춘자 선생님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매주 성북구 주민기록단 활동을 진행해주신 성북문화원 선생님들과 교육해주신 오제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 신수민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엮어내는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석관동의 연탄 이야기를 통해 그 지역의 새로운 모습들을 접하며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몇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권춘자 선생님은 참 따뜻한 성품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살아오신 삶의 무게는 연탄을 가득 실은 리어카처럼 무거우셨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선한 마음씨와 가족들을 향한 사랑, 항상 베풀

기를 원하는 마음은 그 누구보다 크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 해주신 권춘자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성북구 주민기록단 강의를 진행해주신 오제연 교수님과 구술생 애사 도서 제작을 위해 함께 작업을 해주신 주민기록단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 장지희



이미지 출처

- 14쪽: 남윤중 촬영
- 18쪽: 권춘자 제공
- 20쪽: 권춘자 제공
- 25쪽: 권춘자 제공(좌)
- 25쪽: 권춘자 제공(우)
- 28쪽: 성북마을아카이브(상)
- 28쪽: 서울역사아카이브(하)
- 34쪽: 서울사진아카이브
- 37쪽: 서울사진아카이브
- 38쪽: 성북문화원 촬영
- 39쪽: 성북문화원 촬영(좌)
- 39쪽: 성북문화원 촬영(우)
- 41쪽: 김지훈 그림(상)
- 41쪽: 서울사진아카이브(하)
- 42쪽: 성북문화원 촬영(상)
- 42쪽: 성북문화원 촬영(하)
- 49쪽: 성북문화원 촬영
- 54쪽: 남윤중 촬영
- 56쪽: 성북문화원 촬영
- 57쪽: 성북문화원 촬영

59쪽: 성북마을아카이브
66쪽: 남윤중 촬영
68쪽: 권춘자 제공(상)
68쪽: 권춘자 제공(하)
69쪽: 권춘자 제공
70쪽: 서울역사아카이브(좌)
70쪽: 서울역사아카이브(우)
72쪽: 권춘자 제공
73쪽: 권춘자 제공(좌)
73쪽: 권춘자 제공(우)
75쪽: 권춘자 제공
77쪽: 권춘자 제공
80쪽: 성북마을아카이브
82쪽: 서울사진아카이브(좌)
82쪽: 서울사진아카이브(우)
83쪽: 성북문화원 촬영
91쪽: 한천마을 주민공동체 제공
94쪽: 남윤중 촬영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석계역과 신이문역 사이에는
중랑천을 따라 연탄 공장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이곳에 연탄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고
신이문역 부근에 하나의 연탄 공장만 남아있어
예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석관동에 오랜 시간 거주한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당시의 동네 모습이 선명할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권춘자님은 석관동에서 50년간
거주하였으며, 남편과 함께 약 20년의 세월 동안
석관동 골목 곳곳을 누비며 연탄을 배달하였습니다.
긴 시간, 주민들의 겨울을 책임졌던
구슬자의 삶 속에는 석관동의 변화상과
마을의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권춘자님의 이야기를 통해 석관동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ISBN 979-11-954544-5-7



03910

비매물